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허 경 옥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가계의 재무상태 평가지표 및
평가지표 활용 연구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강 미 영

가계의 재무상태 평가지표 및
평가지표 활용 연구

허 경 옥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강 미 영

인준서

강미영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4월

심사위원장 차 경욱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양수진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유수현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정길호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이정옥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가계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금리급변, 급여삭감, 실업자 증가, 자산 디플레 등 금융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성공적인 가계재무관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고령화와 경기침체 상황에서 가계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가계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재무의 안정성이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계는 균형 있는 소비생활 실현, 가계재무 목표 조정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과도한 부채, 불균형적인 소득·소비구조 등은 생계의 곤란 및 가계 재무 불균형 나아가 가족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 또는 가계는 가계의 재무상태를 면밀히 평가하고 평가를 근거로 성과 있는 재무관리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소득·소비의 균형, 가계 경제적 기초 확립, 가계투자 및 자산 포트폴리오의 건전성 등 가계재무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가계 재무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가계의 재무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른 지표로 사용해 왔고 지표의 측정 방법 또한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 재무상태 평가지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가계의 재정적 복지증진을 위한 재무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의 단순지표나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정 상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단순지표는 객관적으로 상호비교를 할 때는 용이하지만 복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가계는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재무비율로 측정하는 방법, 단순지표와 재무비율 병행 방법, 재무건전성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게 된다.

개인 또는 가계는 가계 재무 상황의 위치가 어디인지, 어느 상태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가계 재무 건전성이나 가계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는 크게 주관적 재무상태와 객관적 재무상태로 구분한다. 주관적 재무상태는 현재의 경제상태를 개인의 심리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개념이다. 주관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경제적 정도와 경제적 안정도가 많이 사용됐다.

객관적 재무상태는 현재 가계의 단순지표(예: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로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재무(비율)지표(예: 안정성지표, 성장성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위해서 재무상태에 대한 지표나 기준이 필요한데 재무비율, 비상금 적정도(유동자산과 2개월분의 가계소득), 가계소득, 소득에 대한 부채비율 지표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 상태 파악, 가계재무상태에 대한 주요 이슈 파악, 재무상태 평가지표 관련 선행연구 고찰, 가계재무상태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로써 가계재무상태 지표의 장단점, 가계재무상태 지표의 활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나라 가계재무 상태 파악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가계재무상태 지표들의 장단점 그리고 활용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계의 재무상태 평가는 합리적인 재무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재무복지를 이룩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재무상태 평가를 토대로 가계는 소득과 부의 극대화, 소비 효율성, 재정적 안정,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축적 등을 실천할 수 있다.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계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재무상태 평가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의 투자 및 재무관리 의사결정, 재무상담이나 컨설팅 기업, 정부의 가계재무 지원 각종 정책에 기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

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재무상태 지표의 실질적 활용, 개인과 가계의 특성을 더 충분히 반영하는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 등 더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5
제1절 가계 재무상태 평가지표	5
1. 가계 재무상태 평가지표의 개념	5
2. 가계 재무상태 평가 관련 이론	6
제2절 가계 재무건전성 평가 지표	20
1. 가계 재무건전성의 개념	20
2. 가계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22
3. 가계 재무건전성의 주관적 지표	23
4. 가계 재무건전성의 객관적 지표	25
5. 가계 재무건전성 평가의 중요성	34
6. 가계 재무건전성의 평가 지표와 재무비율의 유용성	35
7. 가계 재무비율의 종류와 준거 기준 관련 선행연구 고찰	37
8. 가계 재무건전성의 평가 지표	40
제3절 우리나라 가계 재무건전성 현황	42
1. 가계소득	42
2. 가계소비 지출	43
3. 가계수지 현황	44
4. 가계부채	46
5. 가계자산	49
III. 가계 재무상태 지표 활용	50
1. 효율적인 가계 재무관리 실천에의 활용	50
2. 가계 재무포트폴리오 구성에의 활용	53
3. 생애주기별 가계 재무관리에의 활용	54
4. 가계 재무건전성 지원 서비스에의 활용	57
IV. 결론 및 제언	60

<참고 문헌> 65

ABSTRACT 71

<표 차례>

<표1> 가계 재무상태 평가 지표 구분방식 8
<표2>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무상태 평가 지표 및 준거기준 11
<표3> 가계 재무상태 평가 지표와 가이드라인 16
<표4> 가계의 재정 상태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9
<표5> DeVaney(1993)의 재무비율 32
<표6> Lytton, Garman, Poter(1991)의 재무비율 지표 32
<표7> 배미경(2001) 사용지표 33
<표8> 재무관리행동 유형 재무관리실천 현황 진단 문항 51
<표9> 재무관리행동 진단 유형 52

<그림 차례>

<그림1> 가계 재무건전성 분류: 김순미(2014) 30
<그림2>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 추이 43
<그림3> 2016년 소득 분이별 소득 증감률 43
<그림4> 소득 하위 20%(1분위) 근로. 사업소득 증감 추이 43
<그림5> 금융권별 가계부채 추이서 46
<그림6> 변동금리 비중 자료 46
<그림7> 가계의 재무건전성 현황 47
<그림8> 금융부채 보유 가구 부채상환능력 47
<그림9> 한국가구 부채상환능력 48
<그림10> 고위험가구 부채상환능력 48

I. 서론

현대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 조기퇴직과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사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개인이나 가계가 한정된 자원으로 생애 주기적 재무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 IT의 발달로 인한 금융공학 발달, 유럽 각국의 재정 악화,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날로 어려워져 금융소비자가 자신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는 개인이나 가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국 국가나 사회의 부담으로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2020년 1분기 우리나라 가계 빚은 1,610조원을 초과하여 사상 최대치라는 뉴스가 있었다(뉴시스, 2020년 5월 20일). 가계 대출은 약 1,521조로 2019년 4분기 대비 17조 2천억원(1.1%)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민경제와 가계경제에서 중요한 지표인 가계 총저축률(국민총처분 가능 소득에서 최종 소비지출을 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2019년 6월 17일). 한편,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은 2.8%로 나타났다. 국제금융협회(IIF)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3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95.3%로 나타났다(아주경제, 2020년 5월 11일).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속도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이다. 한국은행의 2019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도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를 담고 있다(경향신문, 2019년 12월 26일).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의 빚의 증가 속도가 소득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처분가능소득 증가율(2.0%)보다 높은 3.9%(2018년 3분기 대비)로 나타났으며,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또한

160.3%로 심각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자산 규모는 4억 3,191 만원, 부채 7,910 만원, 평균소득 5,828만원, 처분가능 소득 4,792만원으로 밝혀졌다(스카이데일리, 2019년 12월 17일).

한편,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2019년 3월말 기준 가계당 자산 규모는 4억 3,191만원으로 2018년 대비 2.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자산 24.5%(1억 570만원), 실물 자산 75.5%(3억 2,621만원)였다.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부채는 7,910만원으로 2019년 7,668만원 보다 242만원(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 비중은 2018년보다 증가하여 전체 부채의 72.8%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영업 가계가 가장 많이 보유(평균 부채 1억 1,063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청년 가구의 부채(가구주 30세 미만 평균 부채 3,197만원)가 가장 큰 폭 늘어났다고 밝혀서 과거와 달리 젊은 층 가계의 재무관리가 중요하고, 이들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30세 미만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 역시 29.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기준 가계의 평균 소득은 5,828만원(중위소득 4,567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2.1% 증가했다.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소득이 64.9%(3,781만원), 사업소득이 20.2%(1,177만원), 공적 이전소득 6.6%(38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하여 64.9%로 나타난 반면, 사업소득 비중은 1.6%p 줄었다. 2019년 3월 기준 가구 가구주의 예상되는 은퇴 연령은 68세로 은퇴 준비에 걱정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의 조사 발표에서처럼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가계 부실로 이어져 가계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된다. 이들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는 기준이나 지표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고, 가능한 쉽고 표준화된 소득여건, 지급 여력, 이자부담 수준,

원금상환능력 등의 지표를 종합하여 가계에 정보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자마다 다르게 또는 일관성 없이 사용되어 온 가계 소득과 소비지출에 근거한 재무건전성 지표, 여러 성장성 또는 유동성 지표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가계 재무건전성 관련 교육이나 정보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채대비 자산비율 등의 저량 지표를 활용하여 가계부실의 위험가능성을 진단하고, 가계의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계 재무상태를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가계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저축 등 단순 지표를 통해 가계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자산과 부채 상태는 일정 시점에서 가계자원의 저량을 나타내주는 요소로써 두 시점에서의 자산부채 상태의 비교는 가계 재무 상태의 성장 또는 악화를 보여주며 자산과 부채 요소를 기록하는 표를 자산상태표 또는 자산부채 상태표라고 한다(김건우, 이창선, 2012). 또한,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많이 사용해 온 지표는 여러 재무 지표 변수를 조합한 가계 재무비율 개념이다(최현자 외, 2003).

지금까지 여러 선행연구에서 가계 재무상태를 단순지표 사용, 재무비율 사용, 단순지표와 재무비율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별도의 재무건전성 지표를 사용해 왔다(김순미, 2014). 한편,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는 기준으로써 재무비율 지표에 초점을 둔 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수행되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이 미국과 다를 뿐만 아니라 가계의 주요 재무 목표가 미국과 달리 미국의 준거 기준을 적용하기에 어려워 여러 한국 연구자들이 가계 재무비율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여왔다.

가계의 재무비율 지표는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무비율은 기업의 재무평가를 위해 20세기 초에 등장하여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

대 이후 다양한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파산 예측, 지불 능력 평가, 수익성과 유동성 평가 등에 많이 활용되어 왔다(양세정 외, 2013; 재인용). 한국의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재무비율 지표를 정리·종합하면 i) 유동자산/월평균지출, ii) 유동자산/총부채, iii) 유동자산/비담보부채, iv) 유동자산/연간부채부담, 주택을 제외한 자산의 순가치/순자산 지표이다(주소현, 김민정, 2013).

이창선, 김건우(2012)는 소득, 가계의 부채, 자산 상황 등으로 가계이윤과 순자산을 측정하여 가계 부실 가능성과 재무건전성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가계이윤이 위험한 수준이라면 대출을 억제하고, 가계이윤이 위험한 수준이어도 순자산이 건전하면 부채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계 구성원들의 필요 및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즉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계의 재무상태 파악 및 가계 재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문제를 규명하고 가계재무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계 재무상태 평가 지표에 대해 논의하고 정리·종합하였다. 이때 이들 지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상태 현황도 파악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가계 재무상태 및 가계 재무건전성 파악의 객관적 경제지표와 주관적 지표에 대해 논의하고 이 기준의 활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가계의 재무상태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확보의 지표로 활용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가계 재무상태 평가지표

1. 가계 재무상태 평가지표의 개념

가계 재무상태 평가지표란 ‘가계가 재무적 위험을 겪게 되었을 때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이전 상태의 재무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의미한다(정운영, 황덕순, 2002). 재무상태평가지표를 가지고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진단한 주소현 외(2017)의 연구에서는 가계가 환경 변화에 대처 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하는 것을 ‘Financial Fitness’로 명명하였다. 가계의 재무상태는 가계소득, 지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등의 단순지표와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무상태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순지표는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가 단순하기 때문에 가계경제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무 비율이 사용된다. 재무비율은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의 재무변수를 두 가지 이상 조합하여 산출하는 척도로써, 가계의 안정성, 성장성 등을 측정 할 수 있다(최현자 외, 2003; 조혜진, 김정현, 2013).

또한, 재무비율을 통한 가계재무 분석은 가계의 주관적 재무상태를 단순지표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있으며, 가계의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결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최현자, 2007; 김민정, 이희숙, 2010, 이지윤 2018). 재무상태평가 지표 통해 가계의 문제를 파악하고, 가계 재무유형 분석 및 재무 상담에 활용 가능하며, 저축 및 투자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재무 목표를 달성에 기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가계 재무상태 평가 관련 이론

1) 가계 재무상태 평가지표 개발 및 준거 기준

재무비율은 본래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변수를 조합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가계 재무상태 파악에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현자 교수와 동료들의 선행연구에서 가계 재무상태 파악을 위한 재무비율 지표가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최현자 교수 및 가계재무 분야 연구자들은 미국에서 연구 한 재무비율과 준거 기준이 대부분으로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무비율과 준거 기준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현자 외(2003)는 가계 재무비율 11개를 선정하고,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는 안정성 지표로,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유동성 지표는 성장성 지표로 구분하여 각 재무비율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또한 가계의 주관적 경제만족도를 활용하여 재무비율의 준거 기준을 설정하였다.

양세정 외(2013)의 연구에서는 국내 금융환경 변화와 가계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재무상태 평가지표와 준거기준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재무상태 측정을 위해 주택 마련 부채상환지표, 주택 마련 부채부담지표, 금융투자저축성향지표, 노후대비저축지표를 포함한 12개의 재무상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재무비율의 준거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였으며, 각 재무상태평가 지표의 성격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계수지지표, 저축성향지표 등의 특정 지표에서는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준거기준을 제시하였다.

주소현 외(2017)의 연구에서는 가계수지지표, 부채부담지표(장기 부채부담지표, 주택 마련 부채부담지표), 투자성향지표를 중심으로 각 재무상태 평가지표

의 준거 기준을 충족, 주의, 위험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가계의 특성에 따라 재무건전성을 진단하였다(이지윤, 2018; 재인용). 양세정 외(2013)는 금융투자성향지표(금융투자저축/총저축)를 투자성향지표로 제시하였으며, 주소현 외(2017)는 투자성향의 재무비율을 투자자산/총자산으로 산출하였는데, 투자자산은 금융투자자산과 거주 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이 포함되었다.

2) 가계 재무상태 평가지표의 의의와 구분방식

재무상태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들에서 도출된 주요 지표의 의의를 살펴보면, 우선 가계 수지지표는 가계 생활 운영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지표로써 다른 재무상태 평가 이전에 평가되어야 하는 지표이다. 또한 가계지출은 가계가 노력을 통해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도 가계수지지표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다(양세정 외, 2013).

비상자금지표는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써, 수익성과 유동성을 갖춘 금융상품들이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약화 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계 재무상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지표이다. 한편,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대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보장성보험 준비 지표(위험대비 지표)는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소비가 위축 될 수 있음으로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최현자 외, 2003). 또한 부채부담지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부채를 청산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우리나라는 거주 주택에 대한 부채부담이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로 인해 부채 규모가 확대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가계저축률을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재무상태평가 시 부채부담지표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김순미, 2014).

<표1> 가계 재무상태 평가 지표 구분 방식

연구자	구분 방식		
최현자 외(2003)	안전성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준비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	
	성장성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유동성지표	
허경옥. 한수진 (2005)	소득. 지출비율	$\frac{\text{월평균지출}}{\text{월평균소득}}$, $\frac{\text{총저축}}{\text{총소득}}$	
	유동성 비율	$\frac{\text{금융자산}}{\text{월평균소득}}$ (단기), $\frac{\text{금융자산}}{\text{총자산}}$ (장기)	
	자산. 부채비율	$\frac{\text{금융자산}}{\text{총부채}}$, $\frac{\text{월평균부채상환액}}{\text{월평균소득}}$, $\frac{\text{투자자산}}{\text{순자산}}$	
계선자. 정미선 (2007)	수익성	가계수지지표	
	안정성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	
	성장성	저축성향지표, 유동성지표, 투자성향지표	
양세정 외(2013)	준거/ 관점	단기적	장기적
	건전성	소비생활부채상환지표 (현금흐름) 거주주택 마련 부채상환지표 (현금흐름)	총부채부담지표(자산부채) 거주주택마련부채 부담지표 (자산부채)
	건전성+ 성장성	가계지수지표(현금흐름) 비상자금지표(현금흐름+자산부채) 보장성보험 준비지표(현금 흐름) 총부채 상환지표(현금흐름)	
	성장성	총 저축성향지표 (현금흐름)	금융투자저축성향지표(현금흐름) 노후대비 저축지표(현금흐름) 금융자산 비중지표(자산부채)

저축성향지표는 가계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가계의 저축성향을 현금흐름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투자성장지표는 가계의 장기적인 성장과 건전성을 판단 할 수 있는 지표로 가계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가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지표이다. 노후대비저축지표는 장기 목표로써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은퇴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지표로써, 현금 흐름 측면의 저축성향 지표이다.

각 가계 재무상태 평가지표는 안정성과 성장성, 기간에 따라 단기와 중기, 그리고 현금 흐름과 자산, 부채 등 다양한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표1 참조). 최현자 외(2003)는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가계 생활능력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안정성 지표와 가계의 발전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성장성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가계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재무목표를 갖으려면 재무적 안정이 우선적으로 달성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허경옥, 한수진(2005)은 가계의 긴급사태에 대비 할 수 있는 재무적 능력인 유동성 비율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였으며, 가계수지지표와 저축성향지표를 소득과 지출비율로 구분하였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총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금융자산/총부채 비율과 월평균 부채상환비율, 순자산 대비 투자자산은 자산·부채비율에 포함된다. 계선자, 정미선(2007)은 가계 수지지표를 수익성지표로 보고 가계 재무비율지표를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양세정 외(2013)는 한국형 재무비율의 구성 체계를 현금흐름과 자산부채, 재무건전성과 성장성, 단기적과 장기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3) 가계 재무상태의 평가 지표

재무적 안정이란 보통 재무적인 요구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재무적 자원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계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 가계의 특성에 맞는 재무관리 계획이 필요하다(최현자 외, 2003).

가계소득은 가계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써,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가계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계소득의 규모, 규칙성

등 가계재무 상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의 소득 뿐만 아니라 항상소득과 미래소득도 가계 재무상태를 좌우하기 때문에 소비지출도 중요한 요소가 되며, 각 가계마다 다르게 축적된 자산과 부채 상태, 유산은 현재와 미래의 가계 재무상태를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산과 부채의 상태는 일정 시점에서의 가계자원의 저량을 나타내 주는 요소이며, 자산과 부채 상태의 비교를 통해 가계 재무상태의 성장 또는 악화를 볼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가계에 유입, 유출되는 현금의 흐름을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가계 수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가계 재무상태의 평가 지표로서 가계 재무비율의 도입은 우리나라 가계 재무관리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일찍부터 찾아볼 수 있다. 최현자 외(2003)는 제시된 재무비율과 준거 기준이 미국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가계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재무비율과 준거기준을 개발하였다. 가계 재무관리에서는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만일의 위기의 사태에서도 현재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계안정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지만 가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가 되고 나면 현재 상태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목표를 갖게 된다. 따라서 가계 재무상태 평가 지표를 가계의 안정적 생활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안정성 지표와 가계의 발전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장성지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안정성지표로는 가계수지지표와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와 부채부담지표 등 4개의 지표로 선정하였고, 7개의 재무비율로 이들을 측정하였다. 성장성지표는 저축성향지표와 투자성향지표, 유동성지표 등 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고 4개 재무비율로 측정하였다. 제안된 재무비율은 경제적인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계의 경제적 만족도와의 관계분석을 통해 각 비율에 대한 준거기준을 제시하였다(표2 참조).

<표2>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무상태 평가 지표 및 준거 기준

재무상태평가		재무비율	준거기준
안정성지표	가계수지지표	월평균생활비/ 월평균가계소득	<0.9
	비상자금지표	금융자산/ 월평균생활비	>1
		금융자산/ 월평균가계소득	>1
	위험대비지표	월평균보험료/ 월평균가계소득	0< <0.2
	부채부담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 월평균가계소득	<0.25
		총부채/ 금융자산	<10
총부채/ 총자산		<0.8	
성장성지표	저축성향지표	연간 총저축액/ 연간가처분소득	>0.1
	유동성지표	금융자산/ 총자산	>0.1
	투자성향지표	투자자산/ 총자산	0.05< <0.1
		실물자산/ 총자산	<0.9

출처: 최현자, 이희숙, 성영애, 양세정(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 재무상태 평가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 연구, 14(1), 99-122.

4) 가계 재무상태 평가지표의 유형

(1) 안정성 지표

가계의 안정적인 생활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며,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가 포함된다.

① 가계수지지표

가계수지지표는 월평균 소비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월 평균 가계소득에 대한 월 평균 생활비의 비율이다. 가계 생활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가장 간단하

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써, 이 지표 비율이 1을 넘을 경우 월 평균 생활비가 가계소득을 초과하여 적자 생활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 수지지표의 수치는 낮을수록 바람직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된다.

② 비상자금지표

비상자금지표는 금융 자산을 월 평균 생활비로 나눈 값으로, 갑작스럽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 되었을 때,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을 가지고 몇 개월 동안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비상자금지표 수치가 높을수록 가계의 비상사태 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교적 유동성이 큰 금융 자산을 이용하여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큰 형태의 자산을 보유할 때 평균 실업 기간의 3~6개월 정도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지고 있다. 만약 월 평균 생활비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가계 소득을 월 평균 생활비의 대체 값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보통 생활비보다 가계 소득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월 평균 생활비를 이용했을 때보다 지표 수치가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계 소득을 이용하여 계산한 수치 또한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위험대비지표

위험대비지표는 월 평균 가계소득 대비 월 평균 보험료로 계산되며, 장기적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위험대비 정도를 보험료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보험료가 높으면 보험금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가지고 위험대비 정도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지표는 월 평균 보험료를 월 평균 가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보험료 값이 클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 수준과 비교하여 너무 높은 보험료를 지출하게 되면 다른 소비 지출이 위축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지출이 너무 많거나 적지 않은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부채부담지표

부채부담지표는 부채로 인해 느끼게 되는 가계 부담과 부채상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많은 가계들이 부채를 이용하고 있으며, 부채는 가계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계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계의 운영 가능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채상환 지출에 따른 가계의 부채 부담은 월 평균 가계소득에서 매월 지출하는 부채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측정 할 수 있다. 이 수치는 낮을수록 바람직하며, 현금흐름(유량)의 관점에서 측정됨으로 부채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소비 지출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 금융자산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유동성이 있는 금융자산으로 부채상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단기에 부채를 갚아야 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갚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다.

금융자산 또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로 계산되는 부채부담지표는 저량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여 부채상환 능력을 평가하며,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으로 모든 부채의 청산이 가능한지 여부인 부채청산 능력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이 지표의 수치는 최소 1보다 작아야 하고, 낮을수록 바람직하다.

(2) 성장성 지표

성장성 지표를 통해 가계의 자산 축적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써,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및 유동성지표 등이 포함된다.

① 저축성향지표

저축성향지표는 가계의 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유량적인 관점에서 측정함으로써 가계의 저축성향을 파악하고, 자본의 성장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저축성향지표는 연간 총 저축액을 연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지표의 수치는 높을수록 바람직 하지만 저소득층의 저축성향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투자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는 가계경제의 성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자산 운영에서 위험성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정도로 측정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짐으로 투자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투자성향을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실물자산은 주거용 주택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택의 투자성고가 높은 편이므로 재무관리의 장기적 측면에서 투자성향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은 것은 유동성을 저해하고, 포트폴리오 수정이 어려워짐으로 수익을 저해할 수 있다.

③ 유동성 지표

유동성 지표는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할 수 있다. 유동성은 긴급사태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나 자산소득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하는 노년 가계와 같은 경우, 대기 자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자산 증대를 극대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이에 더해, 추출된 지표는 기간을 고려하여 초단기지표(1~6개월), 단기지표(6개월~1년), 중기지표(1~3년), 장기지표(3년 이상)로 나누어 가계의 재정상태를 평가할 수도 있다. 또한 재무상태 정보유형에 따라 가계 수지상태지표와 자산상태지표로도 구분할 수 있겠다.

가계 재무상태 평가지표와 가이드라인은 <표3>과 같다.

<표3> 가계 재무상태 평가 지표와 가이드라인

기준	개념	재무비율	가이드라인	
안정성 지표	가계수지 지표	월평균생활비/ 월평균가계소득	낮을수록 좋은 것으로 예상되나 저소득층의 경우는 너무 낮아도 문제	
	비상자금 지표	금융자산/ 월평균생활비	높을수록 바람직	
		월평균생활비의 자료가 없을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월평균 가계소득의 비중으로 대체하여 계산할 수 있다.	금융자산/ 월평균가계소득	높을수록 바람직
	부채부담 지표	매월 지출해야 하는 부채상환액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유망적인 측면에서 부채부담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부채상환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채부담으로 측정하며 다른 소비 지출에의 영향력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월평균부채상환액/ 월평균가계소득	낮을수록 바람직
		유동성이 있는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부채상환 능력지표이며, 추가 대출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총부채/ 금융자산	낮을수록 바람직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을 가지고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부채청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총부채/총자산	낮을수록 바람직

<표3-1> 가계 재무상태 평가 지표와 가이드라인

기준	개념	재무비율	가이드라인
위험대비 지표	정기적인 위협에 대한 대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가계 소득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어느 정도 지출하는지를 측정하여 위험 대비 정도를 평가하는 자료	월평균보험료/ 월평균가계소득	높을수록 보장수준이 높아 위험 대비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지나치게 많을 경우 현재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음
저축성향 지표	가계 소득에서 어느 정도를 저축하는지 측정함으로써 저축성향을 통하여 가계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연간총저축액/ 연간가처분소득	높을수록 바람직 할 것으로 예측됨
성장성 지표	자산을 운영하면서 위험은 있지만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가계 경제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지표	투자자산/ 총자산	높을수록 수익성은 높아질 것이나 상대적으로 위험성도 증가함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계의 실물자산에의 투자성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실물자산/ 총자산	지나치게 실물자산이 비중이 큰 것은 유동성을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음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여 가계의 유동성을 알려주는 지표	금융자산/ 총자산	높을수록 바람직하며 특히 노년기가계에서 중요함

출처: 최현자 등(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 재무상태 평가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 연구, 14(1), 107.

5) 가계 재무상태 평가 선행연구

가계의 재정 상태와 관련한 영향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구주의 연령이 가계의 소득과 지출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 연령이 증가하면서 총소득과 총지출이 증가하다가 노인 가계에서 다시 감소하는 것이 공통적이다.

대체로 인적 자본 변수인 교육수준과 부채비율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자산에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가족 수가 많을수록 부채가 커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박주영, 유소이(2014)의 부채부담과 재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의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채부담, 연령, 직업 및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주영, 유소이, 2014)

가계의 소득 수준과 지출 수준은 가계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가계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때 연령과 소득이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

대체로 공통적인 결과는 유동자산과 부채는 소득 증가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공통적인 선행연구들의 결과이며, 하지만 증가하는 비율이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가계의 총자산 수준, 유동자산, 부채 등도 가계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표4> 가계의 재정상태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영향요인	연구	주요 결과 및 논의
가구주의 연령	김순미(1996)	연령 증가에 따라 소득과 지출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통계청(1995)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총소득과 총지출이 증가하다가 55세 이상의 노인 가계에서 다시 감소한다.
	차경욱(2006)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 재무 설계를 수행
성별	Bryant(1986)	여성 가구주 가계의 경우가 순자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평균소득은 결혼한 부부의 1/3수준이었다(결혼한 부부와 여성 가구주 가계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차이를 분석)
	Yu(1993)	남성 가구주의 가계 부채부담이 여성 가구주 가계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남(부채부담연구)
교육	김년희 외(1999)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한다.
가구 수	최윤지 외(1998)	소득대비 소비비율의 경우 동거 가족 수가 많을수록 재무비율로 평가한 재정상태가 불건전한 집단에 속 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 지출	홍성희 외(2006)	중년기 남성의 경우 여러 형태의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을 한다.
	배문조(2007)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경향이 높다.
	한혜진 외(2014)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단이 노후를 위한 계획과 준비정도가 높다. 이는 소득과 자산이 충분해야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부채	성영애(2010)	가계부채의 용도별 부채규모 경우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의 규모가 가장 컸고, 각 용도별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임대 보증금의 규모가 가장 컸다. 생활비 마련 용도의 부채는 보유율은 매우 높았으나 보유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유소이, 박주영 (2013)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나 무직에 비해 가계 부채 부담이 증가함
	유소이, 박주영 (2014)	부채부담, 연령, 직업 및 소득이 소비자의 재무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

제2절 가계 재무건전성 평가 지표

1. 가계 재무건전성의 개념

재무건전성은 가계의 재무상태가 얼마나 걱정하고 건전한가를 말하는 것이다. 김경자(1993)는 경제적 위기가 발생할 때 기존 생활수준을 그대로 지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가계의 재무 상태라고 하였다. 정운영, 황덕순(2002)은 가계 재무건전성이란 가계의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지표로서 가계가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막을 수 있고, 그 이전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정의하였다. 재무건전성은 가계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개념 및 측정 방법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재무건전성은 현재의 시점에서 가계가 신속하게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의 시가인 가용 순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변제 의무가 있는 채무액 및 보유자산의 불리한 변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액 즉 매우 급한 지출 또는 예기치 않은 지출이나, 갑작스러운 부도로 그 책임을 떠안았을 때 그것을 충분히 막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냐를 점검하는 것으로 가용 순자산의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측정된다(대신경제연구소, 1998). 가계에 가계 재무건전성을 적용하려면 가계 재무목표, 가계 특성에 맞는 개념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황덕순(1993)은 재정만족도, 생활만족도, 재정적안정, 재정적압박감, 대처행동, 소득관련변수, 고용변수 등을 이용하여 가계의 경제적 안정 상태를 진단한 결과 재정적으로 안정될수록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높다고 밝혔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재무건전성의 의미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인데 이는 가계부채 위험성의 척도가 된다. 가계의 자

산, 부채, 가처분소득, 원리금 상환액 등에 기초하여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국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우며, 특히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2; 통계청, 2013).

한편, 재무건전성은 재정안정성, 경제안전성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재정안정성은 소득과 저축의 비율에 대한 만족도, 재정적 위험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수준에 대한 만족, 미래 은퇴시기에 대한 재정적 안정에 대한 만족, 가정의 순자산 정도에 대한 만족이라고 정의하였다(김연정, 김순미, 1991). 경제안전성은 재무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개념으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주어진 생활수준 또는 소비수준을 지속할 가계의 능력이다(김경자, 1993). 일부 연구에서는 재정안정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혼란을 막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계 재무건전성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재무건전성의 평가는 수익성, 재무구조, 현금흐름, 이 세 분야에서 장기 및 단기 부채비율, 수익성의 변화 등을 나타내는 간단한 재무제표 9개를 제안하였다. 즉, 유동비율, 영업 현금 흐름 비율, 보통주 발행, 이익과 영업 현금흐름과의 차이, 평균 총자산에 대한 장기부채의 비율,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 총이익률을 지표로 제안하였다. 총 9개의 재무지표를 계산하고 이들 중 재무지표가 긍정적인 방향을 나타내면 1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면 0점을 부여함으로써 총점이 9점 만점인 간단한 재무건전성 지수를 개발하였다(박경덕 외 2인, 2008; 재인용).

정운영(2001)은 재무건전성 평가를 위한 재무지표를 크게 성장성지표와 건전성지표로 구분하였고, 양세정, 성영애, 주소현, 차경욱(2013)은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 가계의 건전성과 성장성, 현금흐름 측면과 자산 부채상태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재무건전성은 가계의 재무상태의 안전성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가계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개념뿐만 아니라 측정 방법도 명확히 파악하여 가계 재무건전성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 할 수 있다.

자신들의 현재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가계의 재무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미래의 재무상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Prather, 1990) 이는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문제를 규명해 보고 가계의 재정적 양과 질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 가계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1) 가계 수입/ 지출지표

이 지표는 가계가 스스로 자신의 월 단위, 또는 연 단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현재 가계의 수입과 지출의 현황을 파악하는 계기를 갖게 되고 또한 가계 재무상태를 진단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한다.

2) 자산 및 부채상태지표

이 지표는 개인 스스로 또는 가계의 자산은 물론 부채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표이다. 자신의 자산, 부채 등의 현황을 입력하면 다른 가계나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현황과 비교할 수 있다.

3) 안정성/ 위험성지표

가계가 가계 채무의 안전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 준거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가계의 재무상태가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지를 진단할 수 있다.

안정성지표에는 위험대비지표,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부채부담지표

로 대체로 가계수지(소득/지출)분석, 비상예비자금, 위험대비 적정성, 부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진단할 수 있다.

또한, 가계가 스스로 자신의 위험성향 또는 투자성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진단을 토대로 가계 스스로 위험 감수 수준에 맞는 자산 배분 및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수 있다.

4) 성장성지표

성장성지표는 개인 스스로 본인 가계의 성장성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즉 성장성지표를 나타내는 적절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계의 성장성을 조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저축성향, 투자성향, 소비성향,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상태 등을 통해 성장성을 진단한다.

성장성지표에는 유동성지표,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를 포함하며, 이에 따른 준거기준이 개발되어왔다. 준거기준이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임계치로써 준거기준에 충족하면 건전한 재무상태라 할 수 있다.

5) 가계 재무 목표별 대비/ 현황 지표

이 지표는 가계가 생애주기별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예를 들면, 교육, 결혼, 은퇴 등에 대비해 적절한 수준의 자산이나 소득을 가졌는지를 진단할 수 있다. 이 지표는 가계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자녀 결혼자금, 은퇴 후 필요 자금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한다.

3. 가계 재무건전성의 주관적 지표

개인이나 가계의 금융 또는 재무적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단순 가계 재무지표를 이용하는 방법과 단순지표 요소들의 비율로 나타내는 재무비

율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단순 가계 재무지표를 이용한 가계 재무상태 평가는 가계 재무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은 가계 재무 수준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 재무상태 평가는 가계의 건전성 평가에 쉽고, 생활 주기 및 소득수준별 재무 현황 및 변화를 측정하여 가계 재무 건전성 평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Walson과 Fitzsimmons(1993)은 주관적지표를 가계소득 적정인지도, 가계소득, 부채, 저축 가능액, 순자산, 소비수준, 재정 위기에 대처 가능한 자원의 양에 대한 만족도로 제시하고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도 단순지표와 재무비율지표를 사용하여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한 바 있다(김년희, 2000; 배미경 외, 2001 등). 개인 또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개념 정의는 금융기관, 관련 실무자,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정운영, 황덕순(2002)은 가계의 재무건전성 또는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은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주관적 지표는 가계의 경제적 조건, 심리적 성향, 재정적 요구를 통해 측정하며, 객관적 지표는 화폐소득, 소비지출, 순자산 가치, 소득/순자산 등과 같은 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재무관리의 주목적에는 소득 및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관적 차원의 경제복지를 높이는 것이 있다. 따라서 주관적 가계 재무 건전성은 주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 기준을 정하게 된다.

주관적 재무건전성 평가는 가계의 경제적 측면 대한 가계 자체의 평가를 말하며, 때로는 가계경제의 적정도와 경제적 안정도의 개념이 재무건전성의 구성 요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4. 가계 재무건전성의 객관적 지표

가계의 재정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가계 재무건전성의 객관적인 측정이 중요하다. 가계 재무건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계 재무지표로는 단순 가계 재무지표와 가계 재무비율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단순 가계 재무 건전성지표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가계소득, 가계자산, 소비, 지출 등을 절대적 수준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즉, 가계소득, 소비지출, 가계자산과 가계부채, 순자산, 종합 가계소득, 환산 가계소득, 환산 종합 가계소득, 객관적인 경제적 지표 등이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1) 단순 가계 재무지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진단할 수 있는 단순 가계 재무지표는 소득, 지출, 저축, 부채, 자산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계소득

가계소득 지표를 사용하여 가계 재무건전성은 파악할 경우 가계소득의 크기로 진단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평균소득 그리고 10 분위별 가계 평균소득은 개인 가계의 소득 수준의 적정성을 단순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소득종류별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소득 현황과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다.

필요한 경우 가족 인원수별 가계 소득 수준과 개별 가계의 소득을 단순 비교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계소득의 건전성은 단순 소득액수 외에 소득을 창출하는 직업의 고용 불안전성과 소득 불안전성으로 진단할 수 있다.

- 고용 불안정성: 지난 2년간 정리해고 횟수, 현재 직업의 지속 가능성
- 소득 불안정성: 소득 유입 시기의 일정성 정도

(2) 소비지출

가계의 소비지출 액수 역시 소득, 저축과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소비지출 액수의 크기로 가계 재무건전성의 정도를 진단할 수 있다¹⁾. 한편, 소비지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소비지출 액수를 단순 비교할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소득분위별 지출 액수와의 단순 비교도 가능하다.

가계에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계의 소비지출 액수로 비교한 후 개인이 속한 가계의 소비지출 조정을 검토(권고)할 수 있다. 지출 항목 간의 조정은 지출 비목을 필수 지출과 선택적 지출로 구분하여 지출 비목별 우선순위 등의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소득탄력성의 개념으로 소비지출 항목 간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 소득탄력성이 낮은 소비지출 비목(보통 필수적 지출 비목으로 간주)
- 소득탄력성이 높은 소비지출 비목(보통 선택적 지출 비목으로 간주)

(3) 저축

가계소득과 마찬가지로 가계저축의 건전성을 저축액수의 크기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단순 진단할 수 있다. 가계소득과 마찬가지로 가계의 소득수준을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저축액수 또는 소득 분위별 저축액수와 단순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 생애주기 별로 볼 때 초기에는 안전자산 보유, 소득절정기에는 위험자산 보유, 은퇴기에는 다시 안전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1) 소득 및 지출 등의 금액자료는 전체 가구(해당 항목에 대한 실적이 없는 가구까지 포함)의 가구당 월평균 금액을 말함.

(4) 가계부채

가계부채를 사용하여 가계 재무건전성을 진단할 경우 소득, 지출, 저축과 마찬가지로 가계의 부채 액수, 부채 상환액수 등으로 단순 비교할 수 있다.

가계 재무 위험이 존재 또는 증가하는 이유는 신규 대출자에 의한 지속적인 부채 증가, 가구 부채는 감소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은 상황, 수익성 낮은 은행, 국제 금융 시스템의 이완, 새로운 위험 상존 등이다.

보통 가계부채 수준이 국내총생산(GDP)의 65%를 초과하거나 3년간 증가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험 영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IMF는 5%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GDP 1.45%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GDP대비 OECD 국가들의 가계부채 평균 비율은 59%인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94% 수준이다.

특히 51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8위를 기록했고 조사 대상이었던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KBS, 2018년 9월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은 과다부채 임계치를 GDP 대비 75%라고 제시하였고, 한국은 이보다 19%포인트 높다. 절대 규모로만 따져 봐도 세계 각국과 비교할 때 상위권에 있다고 하겠다. 결국, 2018년 정부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끝으로, 가계는 가계부채 액수로 가계 재무 상태를 진단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의 재무관리 계획 및 실행을 하게 된다. 이때 진단 결과에 대한 기초정보 제공으로써 재정적자, 가계파산과 같은 상식적인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 가계 재무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적절한 수준의 부채 규모, 적정 규모의 부채상환액 등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 가계의 재무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가계 재무상담이나 컨설팅에서 미래의 돈을 미리 당겨쓰는 가계부채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한편, 신용불량에 대한 정보 및 이해도 필요하다. 신용카드 대금을 1개월 이상 연체 시 카드 사용이 중지되며, 3개월 장기 연체 시 악성 채무자로서 모든 카드 사용이 중지된다. 집단 모두가 연체자 즉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부채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가계에 과도한 채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계마다 부채 이용에 있어 적당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준거 기준으로 추가 차용에 관련된 가계 채무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5) 가계 자산(부채와의 비교) 현황

① 자산

가계의 자산의 크기를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자산 액수와 단순 비교할 수 있다.

② 순자산

가계 자산총액 중 부채 액수를 공제한 액수가 순자산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순자산과 단순 비교할 수 있다.

③ 부채

가계부채 액수의 크기로 가계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전체가계의 부채 액수와 단순 비교할 수 있다.

(6) 경제적 안전도(비상금)

경제적 안전도 또는 비상자금은 가계 재무건전성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가계가 필요한 비상자금의 개념 및 액수 등에 서는 발표자 또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안전도(economic security)란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계의 생활수준 또는 소비수준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무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개념으로 보통 유동자산의 시가를 월 평균 소비 지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대체로 경제적 안정도는 가계보유 순자산 가치와 가계 구성원 수를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경제적 안전도의 개념 정의 및 측정 방법은 관련 실무자나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비상자금은 소득 상실 사건이 발생하여도 현재 소비 충당이 가능한 가계의 재정적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을 비상자금으로 정의하는 학자도 있고, 비상자금을 유동성이 빠른 은행저축과 채권, 주식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보통 비상자금의 적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1년의 생활비에서부터 2~3달의 소득으로 측정한다. 즉, 비상자금의 적정도를 위한 기준으로 3달간의 가계의 순소득을 삼기도 한다. 한편, 가계의 비상자금 적정 비율 개념으로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첫째는, 그 가계의 세 달간의 소득으로 유동자산의 합을 나눈 비율인 QEF(quick emergency fund) 비율이고, 둘째는, 세 달간의 소득으로 은행예금은 물론 주식과 채권, 유가증권과 같은 자산들의 합을 나눈 비율로 측정할 것을 말한다. 비상자금 지표는 금융자산을 월 평균 생활비로 나누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확실치 않은 경우는 월 평균 생활비의 대체 값으로 가계 소득을 이용할 수 있다(최현자 외, 2003).

(7) 가계수지 흑자 액수: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균형

가계수지 흑자 액수 즉 가계 소득 수준과 소비수준의 균형을 파악하는 것은 가계의 재무관리를 위한 작업에서 그리고 가계 재무건전성을 진단하는 작업에서 기초적이고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가계 총소득 중 총 소비지출을 공제한 액수로 즉 가계수지 흑자 액수를 측정한다. 예를 들면 전체 가계

의 흑자 액수와 소득 5분위별 적자가구 비율 현황은 개별 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균형 상태를 진단하는데 준거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계의 가계수지 흑자 액수 또는 소득과 소비지출의 균형 상태에 대한 진단평가 이후에는 과소비·부채 가계의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조언이 추가되기 마련인데, 과소비·부채 가계의 부정적, 긍정적 특성 및 현황은 <표5>에 제시한 바와 같다.

보통 가계 이윤과 순자산이 동시에 건전한 수준이면 건전가계로 가계 이윤건전, 그러나 순자산이 위험한 수준이면 지급불능 위험가계, 가계이윤은 위험 수준이나 순자산이 건전한 수준인 유동성 위험가계, 순자산과 가계이윤이 모두 위험 수준인 부실가계로 분류할 수 있다.

		← 위험		→ 건전
			순자산 ≤ 0	순자산 > 0
위험 ↑ ↓ 건전	가계이윤 ≤ 0	부실가계	유동성 위험가계	
	가계이윤 > 0	지급불능 위험가계	건전가계	

<그림1> 가계 재무 건전성 분류: 김순미(2014)

2) 가계 재무비율지표(안정성지표, 성장성지표)

가계 재무비율지표는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가계의 재무상태를 두 가지 이상의 재무적 항목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다시 말해, 재무비율의 개념은 단순히 소득과 지출로 가계의 재무상태를 측정하는 것보다 두 가지 이상의 재정 항목을 사용하여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재무비율은 각 준거 기준을 사용하여 가계의 경제적 상태, 재정의 안전성, 진단할 수도 있다. 재무비율은 생애주기에 걸쳐 재정상태의 변화를 진단하며, 재무 의사결정에 기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가계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 재무비율 기준이 정밀성과 비교 가능성에서 쉽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DeVaney, 1993, 1994).

가계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재무비율은 현금흐름 평가 지표로써 가계수지지표, 부채부담지표, 위험대비지표, 저축성향지표가 있고, 자산부채 상태평가 지표로, 부채부담지표, 투자성향지표, 유동성지표가 있다. 재무비율지표 관련 연구는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수행되었는데, 개발된 재무비율의 종류나 준거 기준이 다양하다. 대체로 재무비율 지표는 특정 가계를 대상으로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상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가계의 재정 유형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 <표5 참조>

최현자, 박주영(2002)은 그동안 미국 등에서 개발·제시된 재무비율과 준거 기준은 외국 실정에 맞는 기준이므로 금융시장환경이 다른 우리나라 가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우리 상황에 적절한 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2003)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의 재무 목표가 자녀교육, 주택 마련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재무상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가계 재무비율을 가계경제의 상태를 안정성과 성장성비율로 분류하였다.

안정성 지표는 가계수지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 비상자금 지표가 있다. 성장성 지표에는 유동성 지표, 저축성향 지표, 투자성향 지표가 있다.

<표5> DeVaney(1993)의 재무비율

재무비율	개념	준거점
총자산/총부채	전반적 지불능력 지표. 1보다 지급능력 비율이 낮으면 지불능력 없음	1.0이상
투자자산/순자산	투자자산은 금융자산, 사업자산, 기타 자산으로 주택은 제외된다. 유동성을 가진 가계 자산이 25% 정도는 있어야 하며 은퇴기에 유동성이 증가하여야 함	0.25이상
유동자산/가처분소득	유동성 비율은 유동자산이 3~4개월분의 가처분소득과 같아야 함	0.25이상
연간 소비자부채 지불액/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액 중에서 부채 때문에 지불하게 되는 비율 부채사용의 안전한 한도는 가처분소득의 10%	0.15이하
연간주거비/총소득	주택에 할당되는 소득의 비율로써 월평균 총소득의 28%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0.28이하
총 연간부채 지불액/가처분소득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0.40이하

<표6> Lytton, Garman, Poter(1991)의 재무비율 지표

재무비율	준거점
월평균 순 소비지출/월평균 가처분소득	1.0미만
유동자산/월평균 순소비지출	2~6개월분
월평균 총주거지출/월평균 가처분소득	0.30~0.40
월평균 소비자 부채상환액/가처분소득	0.10이하
총연간 부채상환액/총연간 소득	0.30~0.35
총주거자산/총 주거 관련 부채	-
연간 총저축/연간 가처분소득	세전소득의 10%
투자자산/순자산	0.20이상

배미경(2001)은 선행연구자들의 가계 재무 상태 측정 재무비율 기준을 <표7>과 같이 사용하여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가계 재무상태를 비교분석을 한 결과 근로 소득자의 경우 가계 재무상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7> 배미경(2001)의 사용 지표

지표	재무비율	의미
소득대비 소비비율	월평균소비지출/ 월평균가처분소득	현재의 재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재무비율. 1.0미만 이어야함
유동성 비율	유동(금융)자산/ 월평균지출	가계가 실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월평균 지출을 포괄할 수 있는 비율. 월 지출액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 3.0을 초과하여야 함
	유동자산/ 연간 가처분소득	평균 지출의 대리변수로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여 측정한 유동성비율로 0.25를 초과하여야 함
	유동자산/순자산	총순자산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중을 평가할 때 이용하며 구체적 재정 목표 평가 시 필요함. 순자산의 25%를 유동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함
부채부담 재무비율	유동자산/총부채	1보다 작으면 지불능력 부족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부채상환이 안 됨. 가계의 전반적 재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표
	총부채/순자산	가계의 지불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총부채가 순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무관리를 해야 하므로 1.0 미만 이어야 함
자본축적 재무비율	투자자산/순자산	안정적인 재정지표는 투자자산이 최소 순자산의 25%를 차지할 때인데, 가족 형성기의 경우 이 비율은 20%미만임

출처: 배미경(2001), “재무비율분석을 이용한 가계 재정상태 비교분석 - 근로자 vs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9), 54.

5. 가계 재무건전성 평가의 중요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파른 물가 상승과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 속에 일부 개인들이나 가계는 충분한 투자정보와 재무진단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무리하게 투자 행동을 취하여 가계 및 사회적 금융부실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국내외의 주식, 채권, 부동산, 현물 등을 연계한 각종 투자 상품과 파생 상품의 등장 등 복잡하고 교묘한 마케팅 속에서 개인이나 가계가 스스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우리나라 투자형 상품 종류가 1만 종류 이상인데 개인은 이러한 상품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투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회, 경제, 금융환경 등의 변화 속에서 개인은 자신과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진단, 평가하고 미래 재무 구조를 예측하고 재무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가계 재무건전성에 대한 이해, 가계 재무건전성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 정보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이나 가계는 자신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진단 및 재무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 최근 금융 및 가계 재무관리 관련 재무 진단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재무건전성 진단의 중요성을 알려 준다.

가계의 재무 상태를 분석·평가하는 일은 재무적 복지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가계 재무 상태를 개별 가계가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정보 및 재무진단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계 재무건전성 진단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된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상황에 적합한 가계 건전성 진단을 위한 객관적 그리고 표준화된 가계 재무진단지표를 개발하여 가계의 소득, 소비, 위험대비,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간의 포트폴리오 등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

의사결정, 각종 재무 지원 서비스, 컨설팅이나 재무 상담 등에 적용해야 한다. 가계 재무건전성의 평가는 소득 수준, 소비지출 액수, 부채 액수 등 단순 가계 경제지표 외에 이들 단순지표를 결합하여 산출한 가계 재무비율지표가 많이 사용되어왔다.

6. 가계 재무건전성의 평가 지표와 재무비율의 유용성

가계는 추구하는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계 구성원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한 재무관리와 경제적 자원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가계의 재정적 복지 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처럼 가계의 재정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양과 질을 측정하여 현재의 가계 재무상태를 파악함으로써, 가계의 재정적 문제를 규명하고, 가계 재무관리 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재무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미래 재무상태를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가계의 재무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는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같은 개념이지만 다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측정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무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재무건전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가계 재무건전성은 가계가 재정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빚 없이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파악하는 개념으로, 위험에 대비하여 가계의 재무구조를 평가하는 사전적 의미의 지표이다(정운영 외 2002).

김경자(1993)의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 안정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가계 재무건전성을 가계의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전의 생활수준을 그대로 유지·지속할 수 있는 가계의 재무상태로 보았다.

한편 황덕순(1993)의 재정적 안정, 재정적 압박감, 대처 행동, 재정만족도, 생활만족도, 인적사항, 소득 관련 변수, 고용 관련 변수를 가지고 가계 경제의 안정 상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가계의 재정적으로 안정적일수록 가계의 재무건전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가계 재무건전성은 가계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경제지표로 측정하는 객관적 개념의 재무건전성과 가계 구성원이 가계의 경제 상태에 대하여 스스로 느끼는 만족과 같은 주관적인 평가로 측정하는 주관적 개념의 재무건전성이 있다.

주관적 지표는 경제적 조건 및 재정자원의 관리에 관한 심리적 성향, 재정자원에 대한 노출 정도 인지 등과 같은 재정적 요구를 통해 측정 가능하다. 주관적인 측정 방법은 복합적인 척도로서, 가계의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다.

주관적인 측정방법에 대한 기준은 응답자 스스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절대적인 평가를 하거나 특정 준거 집단에 의한 상대적인 평가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측정 기준이 달라짐으로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주관적 측정 방법의 결과만을 가지고 단편 일률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황금진, 2015).

한편, 가계 재무건전성의 객관적 개념은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요소를 지표로 하여 측정되는 개념으로,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자산 및 부채보유량, 순자산 등과 같은 재정자원의 절대액을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과 가계의 경제적 자원 간의 상대적 비율인 재무비율을 계산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절대액을 측정하는 방법, 즉 단순 지표를 이용한 가계 재무상태평가는 객관적 상호비교 및 평가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합적인 가계경제를 평

가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적 특성의 한계가 있다(최현자 외, 2003). 따라서 황금진(2015)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계가 보유한 두 가지 이상의 재무변수를 조합한 비율로 가계의 객관적 재무건전성을 평가하였다. 가계 재무비율분석은 가계의 안정성이나 균형성, 성장성 등 복합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어 가계의 재무상태를 단순히 한 측면만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성영애 외, 2004).

재무비율은 재정적 능력을 쉽게 평가하기 위해서 구성된 객관적인 척도로 가계 재무 상담과 재무 계획을 세울 때 진단의 도구로 사용하며, 재정상태 분석 및 논의의 시발점이 되고 있어 재무비율의 가치를 알 수 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측정 지표를 기초로 상대적 비율을 측정한 재무비율은 다양한 가계 재무 평가에 유용하다. 재무비율을 통해 가계의 경제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의 특정 문제점을 알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가계의 재무 유형 분석 및 재무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재무지표를 통해 가계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축 및 투자유형을 개발할 수 있다.

7. 가계 재무비율의 종류와 준거 기준 관련 선행연구

재무비율은 기업의 재무평가를 위해 20세기 초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부터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기업의 파산을 예측하거나 지불 능력을 평가하였으며, 수익성 분석과 유동성 분석 등을 통해 경영성과를 확인하거나 예측하는 데에 사용되었다(양세정 외, 2013; 재인용).

이처럼 재무비율은 본래 기업 재무상태를 분석하는데에 사용되었으나, 점차 연구자들에 의해 가계의 재무상태 평가에도 사용하고 있다. 재무비율이 가계

에 도입된 배경은 가계의 재정 상태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소득과 지출 등의 한 측면만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재무적 항목을 사용하여 재무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정밀성과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재정상태 유형을 평가·분석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가계 재무상태 분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재무비율 지표는 가계 자산의 유동적인 특성과 부채부담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게 한다. 단기부채는 주택용자를 제외한 비담보 부채로 측정하고, 순자산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가치를 측정하며, 주택의 경우에는 투자관점에서의 가치를 산정하여 순자산 비율을 측정하고 있다. 또한 순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자산소득을 이용함으로써 자산에서 창출되는 소득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과 보험중개인, 회계사 등 금융전문가에게 소비, 투자, 신용사용 등의 영역에서도 가계 재무 상태 또는 재무 건전성 평가를 위해 재무비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재무비율이 가계 재무상태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무비율에는 유동자산 대비 월평균지출, 유동자산 대비 총부채, 유동자산 대비 비담보부채, 유동자산 대비 연간부채부담, 주택을 제외한 자산의 순가치 대비 순자산 등이 있다. 공통적으로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이용한 부채 및 유동성비율, 저축비율을 사용하여 재무 변인들은 측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총 주거 자산, 총 주거 관련 부채, 소비 지출, 월평균 총 주거 지출, 투자자산 변인까지 확대하여 재무구조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자들 및 재무 기관들은 투자 자산이 순자산의 최소 25%가 되어야 안정적인 재정지표로 볼 수 있으며, 가족 형성기의 경우에는 20% 미만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준은 재무상담사와 가계에게 가계 재무 및 가계 경제적 복지 상태 측정 및 예측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가계의 지불능력은 부채부담비율 지표가 활용되는데, 가계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측정 가

능한 광범위한 지표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총자산/총부채 비율로 측정한다.

또한, 유동성, 가처분 소득에 대한 연간 총부채상환액 비중은 가계파산 예측을 위한 재무 설계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고, 총소득에서 연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주거비 지출비율 측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다 정확한 가계 재정상태의 파악을 위해서 실물자산을 이용한 부채상환능력과 부채청산에 소요되는 기간, 주관적인 최저생계비와 실제 소득 및 지출과의 관계 등을 추가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이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계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재무비율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4가지 유형이다.

첫째,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은 전체 지출총액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둘째, 유동성 비율은 가계가 실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월 평균 지출 가능한 유동자산이 얼마 정도 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비율이다.

셋째, 부채부담비율은 총자산 대 총부채로써,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비율이다.

넷째, 자본축적비율은 투자자산/순자산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가계의 실물자산액이 재무관리를 통해 잘 운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비율이다.

최현자 외(2003)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11개의 가계 재무비율을 선정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가계의 재무상태 판단을 위한 준거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 등 가계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와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유동성지표 등 가계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 이후 다른 여러 연구자들 예를 들면 성영애(2003), 성영애 외 3인(2004), 허경옥, 한수진(2005), 김민정, 최현자(2007), 김민정, 이희숙(2010) 등과 같은 연구자들이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가계 재무상태 지표가

사용 되어져 왔다.

양세정과 동료들은 우리나라 가계 실정에 맞는 12개의 재무비율을 건전성과 성장성, 단기와 장기, 현금흐름과 자산부채상태의 관점에서 도출하고 각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내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거주 주택 마련 부채상환 지표, 거주 주택 마련 부채부담 지표, 금융투자저축 성향 지표, 노후대비저축 지표를 개발하였고,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부채상환지표, 저축성향지표, 금융투자성향지표의 가이드라인 적용 시 연령별 차이를 고려한 바 있다.

8. 가계 재무건전성의 평가 지표

가계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재무비율은 현금흐름 측면과 자산부채상태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금흐름 측면의 평가 지표는 가계수지지표, 위험대비 지표, 부채부담 지표, 저축성향 지표가 있으며, 자산부채상태 측면의 평가 지표는 부채부담 지표, 유동성 지표, 투자성향 지표가 있다. 해당 재무비율의 개념 및 준거 기준은 양세정 외(2013)의 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 총부채부담 지표

총부채부담 지표는 총자산에서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자산 부채상태 측면에서 평가되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지표 중 하나이다. 총자산은 저축액을 포함한 한 금융자산, 거주 주택 및 거주 주택 외의 부동산 및 기타 실물 자산의 총액으로 측정하고, 총부채는 소비생활과 관련된 부채, 거주 주택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외의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기타부채 등 잔액의 총합으로 측정한다.

총부채부담 지표는 장기부채부담 지표로써,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활용되어 왔다. 주로 총부채/총자산(최현자 외, 2003; Lytton et al., 2006; 양세정, 정지영, 2010), 총부채/순자산(안승철, 김년희, 2001)으로 측정하였으며, 총자산/총부채, 실물자산/총부채(안승철, 김년희, 2001)지표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준거 기준으로서 50~10%이 제시되는 등 연구자들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양세정 외(2013)는 학계 전문가 및 실무전문가 대상 FGI(표적집단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재무비율 준거기준은 40%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2) 금융자산비중 지표

금융자산비중 지표는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으로, 자산부채상태 측면에서 가계의 저축과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여기에서 총자산은 저축액을 포함한 금융자산, 거주 주택 및 거주 주택 외의 부동산 및 기타 실물자산의 총액으로 측정 할 수 있으며, 금융자산은 총 안전금융자산(수시입출금식, 적립식, 거치식 저축, 저축성 보험 등)의 현재가치와 총 금융투자자산(유가증권, 펀드, 파생 상품 등)의 현재 가치의 합으로 측정한다.

금융자산비중 지표는 장기적으로 가계의 성장과 건전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표로 가계 포트폴리오 구성의 선진화와 가계 목표달성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지표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유동성 지표 혹은 투자성향 지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투자자산/총자산(양세정, 정지영, 2010), 투자자산/순자산(최윤지, 최현자, 1989; 안승철, 김년희, 2001; 최현자 외, 2003; Lytton et al., 2006) 등의 재무비율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금융자산비중 지표의 준거기준이 10~25%로 제시되었으나, 양세정 외(2013)는 학계 전문가 및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해당 재무비율의 바람직한 준거기준으로 40% 이상을 제안하였다.

제3절 우리나라 가계 재무건전성 현황

최근 베이비부머 은퇴, 높은 대외경제의존도, 낮은 저축률, 유동자산의 낮은 비중 등으로 가계 소비위축, 주택 및 부동산 시장 하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600조에 달하고 있어 가계의 부채상환 어려움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50대 이상의 가계부채가 50%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가계의 재무건전성 위협은 은퇴 후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부채 규모는 연평균 약 25%씩 증가하였고, 특히 주택시장 호황기 때에는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였다.

1. 가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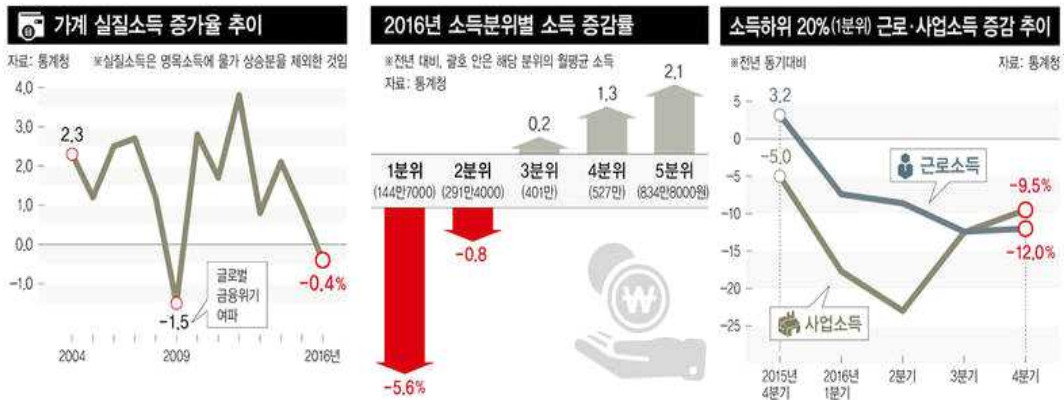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실질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 가계의 경우 체감 고통이 높았는데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4만 7천원, 하위 소득 20~40%에 속하는 2분위 가계도 291만 4천원, 반면 5분위(상위 20%) 고소득층 가계의 소득은 834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 2017년 2월 24일).

한편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이 불평등한 정도를 보여주는데 이 배율 수치는 2008년에 약 5배를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상승세로 바뀌고 있다(매일경제, 2017년 2월 24일).

2. 가계 소비지출

2017년 가계 소비지출은 줄고, 가계의 평균소비성향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빈부 격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확대 등 총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없으면 가계 빚과 소득 붕괴 상태의 가계경제를 살리기 힘들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시각이다.

결국, 가계 소비절벽과 내수침체로 한국 경제도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림2>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 추이

<그림3>
2016년 소득분위별 소득 증감률

<그림4>
소득 하위 20%(1분위) 근로, 사업소득 증감 추이

최근 가계 소비지출은 소득감소에 따라 줄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해지면서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있고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2017년 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만원으로 2003년 통계 이후로 명목 지출의 감소는 처음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도 1.5%나 감소하였다.

가계는 식비, 의류비 등 기초 지출 비목 대부분을 줄였다. 교통(-4.3%), 통

신(-2.5%), 의류·신발(-2.4%), 식료품(-1.3%), 교육(-0.4%), 오락·문화(-0.2%) 등에서 소비지출이 감소하였다.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 소비성향은 71.1%로 매우 과격하게 감소하였다(문화일보, 2019년 6월 17일).

3. 가계수지 현황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의 1만 표본 가구 대상 2018년 가계 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계지출보다 소득이 높다고 응답한 흑자 가계는 29.3%, 가계 지출보다 소득이 적다고 응답한 적자 가계는 23.5%이다.

한편, 소득보다 가계 지출이 많은 적자 가계의 자금 조달 방법을 조사한 결과 적자 가계의 자금 조달 방법은 금융 대출인 가계가 39.4%, 금융 대출로 해결하는 월세가구 42.5%, 저축·투자 감소 31.5%, 토지·건물 등 자산매각이 2.4%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축·금융자산 투자액을 감소시키는 자가 거주 가계는 36.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소비 가계에 대한 현황 및 가계지출구조 등을 통해 가계 적자 관련 진단 및 해결방안 제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성림, 성영애(2007)의 연구에 따르면 가계소득보다 가계지출이 더 많은 과소비 및 부채 가계 비율은 13.34%로 월평균 가계소득의 약 18%를 초과하는 과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소비 중 약 89% 정도는 자산으로 충당되었고, 약 11%는 부채로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으로 충당한 경우 월 소득의 약 2배 정도가 연간 순자산 감소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과소비·부채의 원인에 해당하는 주요 비경상지출은 대학 등록금, 자동차 구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소비·부채 가계에서는 사치적인 소비에 집중하고 있고 비경상지

출 수준이 높았다. 과소비·부채 가계의 주요 부채 변수는 월부 및 외상, 가족 생애주기, 소득, 주택 및 자동차 소유, 직업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과소비 및 부채 가계는 비경상지출 수준이 더욱 높고 경상지출 수준도 높은 수준이었다. 부채 가계는 대학 등록금, 자동차 관련 지출이 가구에 대한 보조금 송금의 비경상적인 특별 지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경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소득이 높은 일반 가계와 비슷한 높은 수준의 소비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정리 종합하면 과소비 가계는 다른 비교 가계에 비교해 소득은 낮으면서 소비지출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소비·부채 가계는 소득이 매우 적어 필수 소비 생활 영위가 불가능해 부득이 부채를 지고 소득 이상의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기보다 풍요로운 생활 추구를 위한 자발적 소비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다른 한편, 이성림, 성영애(2007)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소비·부채 가계에서 과도한 지출로 가계 잉여금은 마이너스이고 자산은 감소하였지만, 평균적으로는 여전히 강제적인 저축성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서 저축이 고갈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출구조에서도 비경상지출 비중이 높으며, 선택적이고 사치적인 소비에도 많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소비·부채 가계가 이처럼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할 가능성을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경상지출 요인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고, 선택적이고 사치적인 지출을 필수적인 지출에 비해 수월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경상지출이 마감되고 의식적인 지출축소 노력을 통해 지출을 소득의 한도 이내로 조정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과소비·부채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낙관할 수 있다.

4. 가계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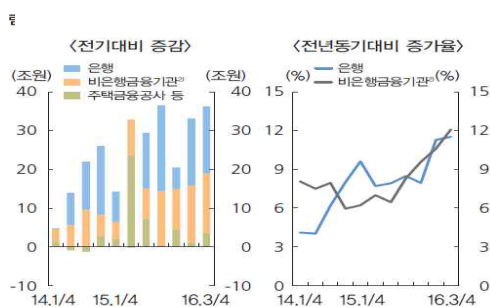
가계부채는 비은행권 대출 즉 대부업체나 사적 부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대출 심사 기준이 비교적 낮고 금리 수준이 높은 편인 제 3금융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비은행 제 3금융기관들의 공격적인 대출 확대에 기인한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시작된 여신심사의 선진화 지침으로 은행권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는 비은행권 제3기관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은행 제3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에는 예금은행 대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출이자 높고 대출 조건이 나빠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성은 향후 대출금리 상승 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크다. 2019년 기준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1%를 초과하고 있어 금리인상 시 취약하고 더구나 비은행권 가계 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은행보다 높아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대출금리 상승 시 부채상환액이나 이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높아진다.

<금융권별 가계부채 추이>



<그림5> 금융권별 가계부채 추이서

주1. 가계신용통계 기준
주2.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
자료: 한국은행

<변동금리 비중>



<그림6> 변동금리 비중 자료

주1. 2016년 3분기 말 은행 가계대출 기준
주2. 기타대출은 주 담보대출 외 신용대출, 비주담보 등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대체로 우리나라 가계 전체의 재무건전성 상태는 양호한 수준이나 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재무위험 우려가 존재한다.

가계의 평균 부채상환 여력은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자산 대비 부채총액 비율로 진단하는데 현재 대체로 양호하다. 전체 가구의 부채상환 여력은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DSR)의 경우에는 28.0%이고 자산 대비 부채총액 비율(DTA)은 18.2%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경우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부채 보유 가계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즉 DSR이 증가하며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부채가 감소한 가구 중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가계의 비중이 87.2%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계가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금융부채 보유 가계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으나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및 DSR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소득보다 부채가 더 높게 늘어나면서 채무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며 가계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 될 수 있다.

< 가계의 재무건전성 현황 >

(%)

	실질 자산 / 총자산	총부채 / 총자산	금융 부채 / 가처분 소득	원리금 상환액 / 가처분 소득
전체	74.1	18.2	115.6	28.0
금융부채 보유가구	76.9	25.8	179.1	38.7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7> 가계의 재무건전성 현황

< 금융부채 보유가구 부채상환능력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8> 금융부채 보유가구 부채상환능력

채무상환 여력이 부족한 재무 위험 가계의 비중과 이들의 가계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출금리 상승 시 가계 채무부실이 예상된다.

부채 보유 가계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한계가구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한계 가계란 순 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며 동시에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40%를 넘는 가계로, 유동성 기준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가계를 말한다. 금융부채 보유 가계 중 한계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 부채상환을 위해 실물자산을 급히 처분하게 될 가능성이 커 실물시장으로까지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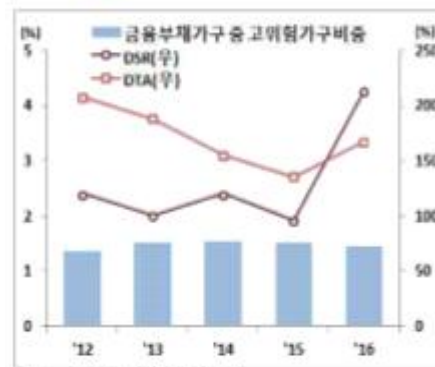
근래 고위험가구의 DSR이 매우 커지는 등의 부채상환 여력이 악화하고 있고 고위험가구가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DTA)이 100%를 넘어서고 있다.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40% 이상인 가구를 말하는데, 청산 기준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가구를 의미한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전체를 처분하여도 부채를 모두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는 한계가계 또는 고위험 가계로 칭한다.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9> 한계가구 부채상환능력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10> 고위험가구 부채상환능력

5. 가계자산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가계당 자산 규모는 4억 319만원 인데 이 중 금융자산 24.5%(1억 570만원), 실물자산 75.5%(3억 2,621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 평균 부채는 7,910만원인데 금융부채 비중이 전체 부채의 72.8%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109.6%, 18.3%로 드러났다. 또한, 소득 5분위별로 살펴보면, 1분위 가구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13.3%, 5분위 가구는 18.4%이었다. 1~2분위 가구의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86.5%, 88.0%로 나타났고 5분위 가구는 65.3%로 가장 낮다고 밝혀졌다.

1분위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7%로 높았고, 나머지 가구는 100%를 약간 상회하고 있었다. 1~4분위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20% 전후이고, 5분위 가구는 가처분소득이 높아 15.1%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리금 상환에 가계의 74.2%가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 26.8%는 생계의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답하고 있다. 원리금 상환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대부분의 가계에서 공통적이었는데 2분위 가구가 더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원리금 상환으로 가계지출 감소 항목으로 식품/외식비 39.7%, 레저/문화비 26.2%, 저축/투자 16.1%, 교육비는 4.8%였다.

한편 대출 기한 내 부채상환이 가능하다고 답한 가구가 92.6%, 상환 불가능하다고 답한 가구는 7.3%로 나타났다.

Ⅲ. 가계 재무상태 지표 활용

1. 효율적인 가계 재무관리 실천에의 활용

가계의 재무 상태는 단순히 가계 재무지표를 통해서 또는 가계 재무비율 지표를 통해서 진단하는 방법 외에 가계에서 재무관리 실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재무 목표는 적절하게 세워두고 있는지 등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도 진단할 수 있다. 이 같은 평가는 진단평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 이후 가계의 건전한 재무상태 확보를 위한 제언이나 컨설팅의 주요 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다.

대체로 가계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소득과 부의 극대화, 소비크기 조절, 경제생활 만족, 재무적 안전 추구, 노후대비를 추구한다. 이 같은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가계는 수입과 지출관리 차용과 세금관리, 소득과 자산보호를 위해 위험관리, 자산 증대를 위하여 저축 및 투자관리, 노후설계와 상속을 위해서 은퇴 및 유산 상속관리를 한다.

그런데 일부 가계는 재무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거나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개인 또는 가계는 무엇보다 재무관리 목표 등 기본 개념을 명확히 인지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맞벌이의 경우 현재 소득이 높으므로 소비성향이 커져 오히려 저축을 적게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저축성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크기보다는 자산이나 미래 소득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자산 및 미래 소득을 더욱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같은 모든 의사결정에는 가계 재무상태 평가 결과가 중요하다.

<표8> 재무관리 행동유형 재무 관리실천 현황 진단 문항

항목	문항
소득, 세금관리	· 납부 세금의 예상 금액과 시기를 알고 있다.
	· 모든 소득 출처별로 연 소득을 매년 계산한다.
	· 세금 납부 기일을 잘 알아두었다가 기일을 지킨다.
	· 순자산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지출관리	· 가계지출에 관한 계획을 매달 세운다.
	· 가계지출 중 조정 가능한 금액을 확인한다.
	·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가계부를 수시로 작성한다.
부채, 신용카드 관리	· 주택마련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있다.
	·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출한다.
	· 저축보다는 부채를 먼저 갚는다.
	· 신용카드 구입 금액이 생활비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저축, 투자관리	· 저축 및 투자목표를 설정한다.
	· 현재의 경제 수준에 적절한 저축 계획을 세운다.
	· 저축할 돈은 먼저 떼어놓고 지출한다.
	· 금리 변동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한다.
보험, 위험관리	· 비상금(사고/질병에 대비한 돈)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 비상시 대비 보험계획을 세우고 있다.
	· 생명보험(중신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 보험료는 납부기일 내에 납입한다.

출처: 홍향숙, 이기춘(1999) 등 선행연구 참조

재무관리행동은 가계가 가계 재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행동으로써 구체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을 보전·증식시켜 가계 안정과 성장 두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소득관리, 지출관리, 세금관리, 부채관리, 투자 및 저축관리, 위험관리 행동이다. 대체로 목표설정, 예산책정, 소비표준 설정, 소득과 지출평가, 저축 및 투자,

가계부 작성, 소비습관 평가, 재무관리의 효율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결국 재무관리의 건전성 확보, 재무상태 평가에 적절한 재무상태 평가지표를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9> 재무관리 행동 진단 유형

항목	문항
소득관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증가 정보수집 · 가계소득 원천의 다양화를 위한 계획수립 · 재산소득을 보유하기 위한 계획 · 업무 기능 점검 · 소득 적절성 진단 및 평가
세금관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세 정보수집 · 연간 세금납부 수립 · 세금납부 기일 파악 및 지키기 · 세금부과 내역, 연체 여부 파악 · 절세행동 평가
지출관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 정보수집 · 고정 지출액과 변동지출액의 파악 · 지출, 지출 액수 기록과 보관 · 변동지출 점검 · 지출 결산 및 평가
투자관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정보수집 · 투자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 투자 방법, 투자 기간 계획수립 · 위험 고려 금융상품 선택 · 투자 방법 적절성 진단 및 평가
부채관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 정보수집 · 신용카드 관리 · 부채상환 액수 및 규모 파악 · 대출 요건 정보수집 및 확인 · 부채상환 행동 평가
위험관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정보수집 · 위험대비책 전략 수립 · 보험 가입 · 보험료 납입 수준 확인 · 가입한 보험의 적절성 진단 및 평가

출처: 홍향숙, 이기춘(1999) 등 선행연구 참조

2. 가계 재무 포트폴리오 구성에의 활용

가계의 재무 포트폴리오 또는 투자행동을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가계는 무엇보다 가계 재무상태 또는 가계 재무건전성 지표를 통해 가계 재무상태를 판단한 이후 가계의 투자행동, 가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피하게 된다. 가계의 투자 행동 유형은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안정지향형은 가계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기피하여 기존의 투자대상 및 투자 방법을 계속 유지하는 유형이고, 변화지향형은 변화를 받아들여 원래의 투자방법 및 투자대상을 바꾸는 유형이다. 가계의 이 같은 투자 행동 선택을 가계 포트폴리오 상태평가 등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은 원금상환, 이자 지급의 확실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자산이다. 안전자산은 은행저축, 보험, 투자신탁, 국공채 등이며 위험자산은 주식, 회사채, 일반사채, 계 등이다. 위험자산보유율은 금융자산에서 위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한편, 자산과 부채 간에는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 다변량 재고조정 가설에 따르면 가계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그리고 부채에 대해 일정한 기대가 있어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파악하고 자산 관련 변화에 따라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위험/수익 피라미드 이론에 따르면 위험/수익 피라미드에서는 투자 단계가 높아질수록 위험과 수익은 증가한다.

- 1단계(안전성): 현금, 보험, 예금증서, 양도성, 저축, 노후대비 예금
- 2단계(안전성, 수익성): 회사채, 국채, 지방채, 금융채
- 3단계(성장성): 투자신탁, 우량주, 전환사채, 부동산 임대
- 4단계(투기성): 관리종목 주식, 귀금속, 정크본드, 옵션, 선물상품(농산물, 석유 등)

위험/수익 피라미드 접근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저수익, 저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보수적 투자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 이후 중간 단계에서는 초기보다 다소 고위험, 고수익 특성이 있는 도전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최종 피라미드의 정상 단계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취한다는 것이다. 보통 가계는 생애주기별로 초기 단계에서 최고 위험 단계를 거쳐 다시 보수투자 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다음의 7단계가 대표적 투자 과정이다.

- 1단계: 안전자산에 투자
- 2단계: 위험도가 높은 증권에 투자
- 3단계: 보수적 투자로 전환해서 위험 균형화 시키기
- 4단계: 소득절정기이므로 고위험 증권에 투자
- 5단계: 소득획득 가능성이 제한되는 시기이므로 미래 소득 산출을 위해 보수적 투자전략으로 다시 바꾸기
- 6단계: 은퇴 직전기로 보수적 투자전략으로 재전환
- 7단계: 소득 상실기이므로 당기 소득 산출에 치우친 포트폴리오 재구성

결국 가계의 재무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의 의사결정에 적절한 가계 재무상태평가지표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생애주기별 가계 재무관리에의 활용

가계의 재무상태 또는 재무건전성 파악은 우리나라의 표준 가계나 준거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현재 원하는 삶의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각자의 가계상황 특히 생애주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결국

가계 재무지표를 생애주기별로 그 특성에 맞게 활용 또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생애설계 시 주요 목적자금 달성을 위해 이와 관련한 지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생애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목적자금으로는 본인 결혼자금, 교육자금, 주택마련 자금, 자녀 결혼자금, 질병 사망 사고 등 위험대비 자금, 부채상환자금, 그리고 은퇴자금 등이다.

물론 이 외에도 자동차 구입, 가족여행, 치아교정, 피아노 구입 등 사람마다 원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처럼 일시에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결혼자금이나 주택마련 자금 등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부모님을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부양해야 하는 자금 같은 경우 본인의 은퇴자금 준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설계에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되는 것이다.

1) 생애목적별 가계 자금설계에의 활용

생애 목적별 가계 자금설계는 보통 통합 현금흐름 방식의 지표를 사용한다. 통합현금흐름 방식이란 순차적으로 달성되는 재무목표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목적자금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현재 시점에서 가계의 모든 재무목표를 정하고, 그러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저축금액을 한 번에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어느 한 가계의 재무 목표가 5년 후에 자녀교육비 5천만원이 필요하고, 15년 후에 은퇴자금 5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을 때 이 가계는 교육자금 용도로 매월 약 75만원, 은퇴자금을 위해 매월 약 400만원을 저축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목적자금 방식은 실제로는 교육자금 준비가 끝나는 5년 후부터는 은퇴자금을 위한 저축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무시된 분석이다.

또한, 국민연금 개시 시점과 은퇴 시기가 다른 경우, 중도에 저축액이 변화하는 경우는 분석 결과가 달라진다. 이러한 목적자금 분석방식은 정확한 계획을 방해할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필요 저축액을 산출하게 되고,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 저하, 저축에 대한 의지 상실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된다.

우리나라 재무 설계 회사나 금융기관 등 많은 재무 설계 담당 기관들 상당수가 현재 시점에서 각각의 목적자금을 따로 설계하는데 이 경우에 로직이 간단하고 구현이 간단하나 현실과의 괴리가 크게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은퇴 설계에서 여러 가계의 특성이나 개인 특성에 적절한 가계 재무지표를 활용해야 함을 알려준다.

2) 통합 재무 설계에의 활용

통합 재무 설계의 기본 구조는 저축액, 투자수익률, 물가상승률 등에 근거해서 각 연도의 자산을 추정하고, 목적자금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실제 가계자산이 운용되는 방식대로 시뮬레이션하므로 현실에 가깝고, 국민연금 개시 시점과 은퇴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통합 재무 설계에 적절한 재무지표 개발 및 활용이 중요하다.

3) 생애 목적자금에의 활용

생애 목적자금은 자녀교육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위험대비자금, 기타(부채상환, 자동차 구매 등)로 구분하며 은퇴자금은 별도로 구분한다. 필요자금의 금액은 현재가치로 원하는 금액 또는 최소 필요 금액 형태로 평가하고 필요 자금 부족 시 조정이 가능하다. 필요한 시기는 자산이 필요한 년, 월을 기준으로 한다. 결국 이 같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지표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4) 은퇴자금에의 활용

은퇴자금은 예상 퇴직 나이와 은퇴 후 월 생활비를 원하는 생활비 또는 최소 생활비 형태로 정한다. 은퇴시기 역시 원하는 은퇴시기/최대 연령(은퇴가 늦을 경우)으로 간주한다. 은퇴자금 통계에 따르면 부부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 151만원, 적정 노후 생활비 217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2010년, 국민연금연구원 패널조사 결과).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가구주 나이별로 가족생활 주기를 구분지은 다음에 자산보유 유형을 분석하면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자산이나 투자를 하고 있으나, 퇴직에 가까울수록 위험자산이나 투자를 줄이고 생애주기와 가계 소득에 따라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변화된다는 의미이다.

대체로 자녀 미취학기에서 노년기까지 보유하는 가계 금융자산은 줄어드나, 부동산 보유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생애주기별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은 정운영, 한경미(2004)가 수행한 가계의 비상자금 적정도와 가족생활 주기에 관한 연구, 여윤경(2009)의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자산 선택 연구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잘 드러나고 있다.

4. 가계 재무건전성 지원 서비스에의 활용

최근 금융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금융 문맹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융 정보에 취약한 계층에서 금융투자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많은 투자자가 기본적인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자문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적인 금융자문 제도로 도입하고 있다.

금융 자문 서비스 시행에서는 우선 개인의 금융 상태진단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때 걱정된 가계 재무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금융시장 환경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일반 가계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역량 교육 프로그램에 가계 재무상태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과 활용이 중요하다.

금융소비자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발생한 주요 금융 소비자피해 액수는 최소 30조원 이상에 달한다(소비자경제, 2012년 3월 7일). 금융 관련 피해는 소비자의 금융 문맹에서 비롯된 것이 많고 금융 정보에 취약한 계층의 투자 및 금융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 민원센터의 금융상담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월에서 9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소비자 상담 및 민원 건수는 423,190건으로 2011년 대비 11.9%나 증가하였다(아시아경제, 2013년 1월 21일).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많은 소비자나 가계가 금융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금융감독원, 2011).

금융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거래 결과가 미래의 경제적 성패에 많은 영향을 주며 거래 체결의 핵심 요소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아닌 계약 이행 여부에 있다(김성숙 외, 2012). 또한, 금융상품은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정확한 재무 정보를 아는 데 어려움이 있고, 상품 구조가 복잡하여 재무 정보를 획득하였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김병연, 2009; 전성인, 2008; 김성숙 외, 2012).

따라서 금융거래 당사자 간에 재무 또는 금융 정보의 비대칭을 최소화 하고, 금융소비자 또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금융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금융감독원, 2010; 김성숙 외, 2012). 이 같은 과정에서 많은 재무 의사결정에서 사실상 가계 재무지표가 정확하다.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재무건전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또는 가계의 재무상태평가 및 재무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재무건전성 문제를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는 재무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함께 부각 되면서(연태훈, 2010), 재무역량 제고를 위한 재무지표 관련 교육을 실

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지식 전달 방식의 재무지표 관련 교육은 더 이상
가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 소외계층이나 재무
취약 가계의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국내 재무 또는 금융시장환경에 맞
는 한국형 맞춤형 재무상태 평가지표를 활용한 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무상태 또는 재무건전성 평가의 중요한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과도한 가계 재무 악화를 방지하고 가계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계 재무상태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계 재무상태 평가지표에 대한 지식 및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부실 위험이 큰 재무위험 가계에 대한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 운용, 표준화된 재무상태 평가지표 개발, 재무상태 평가지표의 효율적 활용 등 가계 재무평가 시스템 확충이 시급하다. 궁극적으로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무상태 평가를 토대로 하는 가계 재무관리 지원이나 컨설팅이 중요하다.

가계부채는 저금리,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바탕으로 증가하여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재무 부실이 우려된다. 국가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하면서 2014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LTV, DTI 규제 완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낮은 금리 수준 등으로 가계부채는 10% 초과 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 미국 금리인상이 발생할 경우 즉 국내 대출금리 상승이 본격화될 경우 가계대출금리 크게 상승할 것이며,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여 가계 재무 건전성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계 채무상환 부담 상승이 가계 지출 감소와 소비를 위축시키고 또다시 국가 경제가 침체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 인상 관련 가계 재무상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재무지표 활용 교육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가계의 재무상태 또는 재무건전성 진단을 위한 객관적 지표 수단으로써 단순 가계 재무 지표 및 재무비율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첫째, 단순 재무 지표로써 소득, 소비지출, 저축액, 가계흑자, 가계자산 등의 지표를 가지고 가계 금융/재무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다. 이때 진단기준 또는 진단 방법은 서비스를 받는 개인 스스로가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현황과 비교하는 것이다. 금융/재무진단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가 현재 자신 또는 가계가 처한 금융 및 재무 상황을 스스로 타인 가계와 비교, 분석하고 평가해 봄으로써 본인 스스로 객관적으로 진단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가계 재무비율 지표를 사용하여 가계의 금융/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가계 재무비율 지표는 크게 안정성 지표와 성장성 지표로 나눌 수 있다. 안정성 지표는 가계의 소비성향과 적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가계 수지 지표, 장기적 위험에 있어 대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위험대비 지표, 일시적 소득중단이 발생할 경우 현재 생활수준을 얼마나(몇 개월) 유지할 수 있는가를 진단하는 비상자금 지표로 나눌 수 있다.

부채부담지표는 부채부담을 평가할 수 있는 단기부채부담지표, 부채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기부채부담지표, 부채 청산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장기부채부담지표 3항목을 포함한다. 성장성 지표는 가계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저축성향 지표, 투자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투자성향 지표, 가계의 유동성을 알려주는 유동성 지표의 3항목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 평균치 및 준거지표와 비교함으로써 가계 스스로 금융진단을 평가할 수 있다. 가계의 금융/재무건전성 상태를 한국표준 가계 모형을 사용하여 표준 가계의 재무건전성 상태를 제시함으로써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현황과 비교할 수 있다.

한편, 가계 재무상태 또는 건전성에 대한 평가지표로써 주관적 평가 방법

이 있다. 주관적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은 저축, 위험대비, 자산 전반적인 생활수준, 빚을 갚을 능력, 소득, 은퇴준비금으로 측정되었고 그 외 재정 불만족이나 재정적 곤란, 재정난 정도와 같은 재무 상태를 측정할 때에도 각 생활영역에 대한 복합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단일 척도가 아닌 가계 현상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돕는 복합 척도인 재무비율이 재무건전 상태를 파악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응답자 스스로 세운 기준에 따라 절대적 평가를 실행하거나 특정한 준거집단에 의해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서 단편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관적으로 가계의 재무 상태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재정 안정도, 재정 만족도, 재정 곤란도, 주관적 재정위기감 개념으로 측정하였다. 재정 만족도는 가계 재무상태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정도(황덕순, 1995)로 재정 목표나 재정 기대의 달성 정도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충족감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 및 가계가 원하는 재정적 수준과 실제로 느끼는 재정적 수준 사이에서 지각하는 차이의 정도인 것이다(홍향숙, 1997). 재무 만족도 개념은 가계의 재무 상태를 보편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재정적 요인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인 재무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그 가치가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연구자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 주관적 만족이 다르게 측정되어 왔다.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주요 채무관리영역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측정한 연구, 위험에 대비한 능력과 노후 만족도 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만족도 연구가 계속되어왔다. 예를 들면, 금융 생활영역, 구매 생활영역, 소비 생활 영역에서의 재정만족도 연구, 가계 재무목표의 달성 정도 즉 주택 마련, 노후대비 및 위험대비, 자녀교육, 자산증식, 거액 지출에서의 만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재정 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재정안정도는 소득과 저축 비율 만족, 재정적 위험 대응 만족, 미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안정 만족, 가정의 순자산 만족으로 구분되어왔다. 이는 재정 만족도의 척도가 재정안정도와 거의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 불일치는 제한된 경제적 자원 안에서 가족의 목표와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재정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차이나 불만족을 의미하며, 재정 불만족은 금전, 부채, 저축, 투자 등의 관리 및 소비지출 영역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주관적 인지도로 간주 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재정 곤란과 더불어 같은 개념으로 여겨지며, 재정 만족도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가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계는 가계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가계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가계 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가계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계의 유동성 관리, 가계 부채 관리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재무평가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물론 가계 부채의 과도한 증가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규제, 주택시장 관리, 가계 재무 복지실현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가계 부채 증가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 때문에 발생한 주택 공급시장 관리,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방지, 투기적 수요 억제를 통하여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를 막아야 한다. 재정위험 가계의 경우 금융권의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도록 하여 가계 부채의 건전성을 개선하고 만기 일 상환 시 발생하게 되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축소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정책수행에서 채무자가 충분한 상환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해 세세한 검토를 진행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과잉 대출을 방지해야 한다.

한편, 부실 위험이 큰 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또는 회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가게 채무상환 부담이 위험 가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가게의 재정부실이 실물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원리금 상환 연체, 채무불이행 상태 한계 가게가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제도 강화, 재정 적자 가구 채무부담 완화, 및 신용회복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명확한 재무 상황의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게 재무상태평가를 위한 여러 지표에 대해 논의하고 각종 지표들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가 다루었던 지표들의 개선, 연령, 자가 보유 여부, 직업, 가족 생활주기 등 가게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 개발 등의 연구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가게의 재무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재무의사 결정에, 자산관리 관련 컨설팅 업체나 재무 관련 기관의 재무상담 및 컨설팅 업무에, 정부의 재무평가 서비스 및 각종 가게 재무복지 정책 수립에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1995, 2006, 2013, 2019), 통계청.
- 경향신문, 2019, 12, 26일.
- 계선자, 정미선(2007),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 재무건전성 및 재정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3), 123-144.
- 국민연금연구원(2010년), 국민 노후보장 패널 부가조사 분석보고서, 국민연금공단.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백서(2010, 2011), 금융감독원.
- 금융안정보고서(2016, 12), 한국은행.
- 김건우, 이창선(2012), 가계 부실지수로 본 가계부채, LG경제연구소.
- 김경자(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 단기지표와 장기지표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07-118.
- 김년희(1999), 재무적 만족에 대한 가계의 주관적 경제불안 및 경제수준 평가의 영향력, 한국경영교육학회, 19, 257-272.
- 김년희(2000), 가정생활 주기에 따른 도시가계의 재정 상태분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민정, 이희숙(2010),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학회, 21(1), 53-69.
- 김민정, 최현자(2007). 가계재무상태 평가 지표의 타당성 검토. 소비자학 연구, 18(3), 87-110.
- 김병연(2009).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 금융연구, 23(2), 1-207.

- 김성숙, 김용덕, 안수현, 오기석, 차경옥, 최현자(2012). 금융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의 금융업권 별 경영 및 금융서비스품질 평가 지표 개발, 금융 소비자 연구, 1(2), 45-71.
- 김순미(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지, 14(3), 223-236.
- 김순미(2014),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은퇴 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
학회지, 18(4), 27-52.
- 김연정, 김순미(1991), 체계론에 근거한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인과적 모
형, 대한가정학회,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9(4), 151-165.
- 뉴시스, 2020, 5, 20일.
- 매일경제, 2017년 2월 24일.
- 문화일보, 2019, 6, 17일.
- 박경덕, 한길석, 윤석진(2008), 신용등급예측을 위한 수정재무건전성지수모형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21), 1-18.
- 박주영, 유소이(2014), 부채부담과 재무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23(1),
47-61.
- 배문조(2007), 직장인의 은퇴 기대가 은퇴 준비 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5(1), 145-158.
- 배미경(2001). 재무비율 분석을 이용한 가계재정 상태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9(9), 49-61.
- 성영애(2003), 가구주 직업에 따른 연령별 가계재무구조의 분석, 대한가정학회,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1), 39-58.
- 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최현자(2004). 가계재무상태 평가 지표를 이용한
가계유형의 분석. 소비자학연구, 15(3), 155-171.

- 성영애(2010), 가계부채의 용도별 보유현황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학연구, 21(3).
- 소비자경제(2012). 금융소비자 피해액 30조원 넘어도, 금융당국은 무대책 수수방관, 3월 7일.
- 스카이데일리, 2019, 12, 17일.
- 아주경제, 2020, 5, 11일.
- 안승철, 김년희(2001),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영남지역발전연구, 28, 73-97.
- 양세정, 정지영(2010), 재무설계전문가(FP: Financial Planner)를 대상으로 한 가계재무지표값 조사, 한국FP학회, Financial Planning Review, 3(1), 109-137.
- 양세정, 주소현, 차경욱, 김민정(2013), 한국형 가계재무비율 도출 및 가이드라인 제안, 한국FP학회, Financial Planning Review, 16(3), 143-181.
- 여윤경(2009),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위험자산 선택행동,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10(3), 51-74.
- 연태훈(2010),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정책제언, 금융포커스, 19(49), 10-11.
- 유소이, 박주영(2013), 가계부채와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가계재무 스트레스 결정요인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 학술대회 자료집, 2013(11), 108.
- 이성림, 성영애(2007), 적자부채 가계의 지출구조 및 유형별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19(6), 2483-2504.
- 전성인(2008), 새 정부의 금융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 경제의 분석, 14(1), 1-52, 한국소비자원 연구보고서.

- 정운영(2001), 재무관리 체계 모델을 적용한 도시가계의 재무건전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운영, 황덕순(2002). 도시가계의 재무관리 행동과 재무건전성-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2), 115-130.
- 정운영, 한경미(2004), 가족생활주기와 가계의 비상자금 적절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학연구, 15(1), 23-37.
- 조혜진, 김정현(2013), 중고령 가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재무건전성, 한국금융 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 55-71.
- 주소현, 최현자(2017), 개인재무설계 연구의 발자취, 한국FP학회, 10(4), 157-182.
- 차경욱(2006), 노인소비자문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 한국가족지원 경영학회지, 1, 107-107.
- 최윤지, 최현자(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 상태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83-96.
- 최현자, 박주영(2002).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계 포트폴리오 변화유형 및 각 유형별 가계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51-163.
-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 재무상태 평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22.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하나금융연구소(2012), 금융시장 모니터, 자금: 가계부분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부각, 하나금융 포커스, 22(11), 20-26.
- 한혜진, 오은주, 정순희(2014), 1인 가구의 주관적 경제인식 및 경제적 노후준비와 재정만족도 관계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1), 173-198.
- 허경욱, 한수진(2005), 재무비율을 이용한 소득계층별 가계재무구조분석, 한국

생활과학학회지, 14(4), 613-629.

홍성희, 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홍향숙(1997),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달성도, 대한가정학회,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35(6), 157-171.

홍향숙, 이기춘(1999).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57(9), 39-56.

황금진(2015),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가계자산구조 및 재무건전성 비교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황덕순(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69-82.

황덕순(1995), 도시가계의 물가불안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5, 77-89.

KBS뉴스, 2018년 9월 27일

Bryant, W. K.(1986), Assets and Debts in Consumer Portfolio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0(1).

DeVaney, S. A.(1993, 1994). Change in Household Financial Ratio Between 1983 and 1986: were American Households Improving Their Financial Statu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ume 4, 31-46.

Lytton, R. H., Garman, E.T. & Poter, N.M.(1991), How to Use Financail Ratio When Advising Clients. Financail Counseling and Planning, 2, 3-24.

Lytton, R. H., Grable, J. E. & Klock, D. D.(2006). The process of financial planning: Developing a financial plan. National Underwriter Academic.

Prather, C. G. (1990), 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53-70.

Walson & Fitzsimmons, V. S.(1993), Financial Manager' 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Composite Measu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193-214.

Yu, J,(1993), Determinants of househol' s asset/debt holdings and debt burdens, Proceeding of the 39th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99-401.

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household financial indicators and evaluation indicators

Kang My Young

Department of Life Culture and Consume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household economy changes, it is not easy to successfully manage household finances by responding appropriately to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such as interest rate changes, wage cuts, unemployment increases, and asset deflation. With the recent aging and economic downturn, it is increasingly difficult to secure household financial s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In order to secure the stability or soundness of household finances, households are required to make various efforts, such as realizing a balanced consumer life and adjusting household financial goals. Excessive debt, unbalanced income and consumption structure, etc. can lead to difficulties in living, household financial imbalance, and family dissolution. Therefore, an individual or household should carefully evaluate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household and cultivate good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based on the assessment.

In a situation where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household financial soundness, such as balance of income and consumption, establishing a household economic foundation, and soundness of household investment and asset portfolio, scientific evaluation of household financial status should be given first of all.

The evaluation of the household's financial condition has been used as a different indicator by researchers, and the method of measuring the indicator is also different. Therefore, this study closely looked at the indicators of household financial condition evaluation.

When households try to implement systematic financial management with the goal of promoting financial well-being, the most basic thing to do is to evaluate financial status using simple indicators such as income, expenses, assets, and debt or financial ratios. However, simple indicators are easy for objective cross-comparison, but complex evaluations are so simple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understanding their characteristics. As a result, households use various indicators, such as the method of measuring the financial condition, the method of measuring the financial ratio, the method of combining simple indicators with the financial ratio, and the method of evaluating with financial soundness.

Individuals or households need to diagnose where the household financial situation is, where it is and where it is desirable to go. The evaluation of household financial soundness or household financial status is largely divided into subjective and objective financial status. Subjective financial

status is the concept of evaluating the current economic status on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basis. As a concept that values the subjective aspect, economic and economic stability were used a lot.

Objective financial status can be measured by measuring the current household's simple indicators (eg income, expenditure, assets, liabilities, etc.) and financial (ratio) indicators (eg stability indicators, growth indicators). For rational financial management, indicators or standards are required for financial status. Financial ratios, non-equilibrium appropriateness (current assets and household income for two months), household income, and debt-to-income indicators are used.

In this study, we understand the financial status of households in Korea, identify major issues about household financial status, review previous studies related to financial status assessment indicators, discuss the criteria for evaluating household financial status, 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household financial status indicators, and use of household financial status indicators Discussed. In other words, we looked at the major issues related to the current state of household finances in Korea, and discussed the pros and cons and uses of household financial status indicators.

Evaluating household financial condition is very important for achieving financial welfare by inducing rational financial decisions. Based on the financial condition assessment, households can practice maximizing income and wealth, consumption efficiency, financial stability, and asset accumulation for aging. Can. In order to achieve efficient asset management, an accurate evaluation of the household financial condition

must be made first, so understanding of the financial condition evaluation criteria must be prioritized.

Therefore, this study is worthwhile as a study that provides basic information on various policies for household investment and financial management decisions, financial counseling or consulting firms, and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In future studies,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on a variety of topics will continue, such as the practical use of financial indicators and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assessment indicators that more 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감사의 글

학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늦은 나이에 박사과정을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너무나도 막막한 마음에 ‘내가 과연 이 과정을 잘 해 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컸었는데 시간은 참으로 빨리 흘러 어느새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연구계획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론적 체계와 학문적 기틀을 바로 잡아 주시고, 모든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지도 해 주신 허경옥 교수님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제자임에도 언제나 꼼꼼한 지도로 학문적 혜안을 주시며,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로 용기를 주신 교수님 덕분에 이 논문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큰 사랑과 관심, 세심한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글이나 말로도 교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 할 수 없으며 교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졸업 후 남은 일생 동안 교수님께서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작게라도 꼭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제 논문의 부족한 부분들을 박사 논문답게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신 이신애 교수님! 세심한 배려로 논문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많이 해 주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봉사활동 온 대학생과 간호사의 만남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함께 대학원을 오게 되었고, 대학원 생활의 즐겁고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하며 위로와 격려를 통해 동기부여를 시켜 준 동기 장성철 박사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사님과 함께였기에 이 과정을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항상 믿어주시고 응원 해 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도 더욱더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와 사랑, 헌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아들 딸 구별 안하시고 저를 대학에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큰딸로 태어난 것이 제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아내를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면서 언제나 말없이 도와주고, 내 편이 되어 주는 나의 남편 최운목! 진짜진짜 고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범생이어서 생각만 해도 마음 뿌듯한 우리 아들 재일이!

나와 정서가 거의 비슷해 고부간의 갈등은 거의 없을 것 같은 이쁜 며느리 명화!
한양대학교 학위 발표 후 마장갈비 회식 때 인연이 되어, 그때의 풋풋함이 지금도
생생한 멋진 사위 은범박사!

빠른 결혼이 무척 아쉬웠는데 살림과 육아를 야물딱스럽게 잘 하고, 무엇보다도 엄
마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는 이쁜 딸 은지!

우리 가족들에게 가슴 몽클한 감동과 기쁨을 주면서 잘 자라고 있는 사랑스런 손녀
다인이와 손자 호선이! 그리고 9월에 태어날 개꿀이!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우 윤규와 상규! 경호와 은아! 사랑스런 조카 연재와 주희,
연준이와 연욱이!

우리 가족들의 힘찬 응원 덕분에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고, 이런 영광된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강미영 드림